



한국의 보물, 해인<19>

해인의 불교적 의미

불교의 교리체계에서 설명되는 해인은 원래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해인삼매(海印三昧)는 해인정(海印定)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드신 삼매의 경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과거·현재·미래를 통해서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경지를 뜻한다. 바다에 풍량이 쉬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모두 바닷물에 비치는 것 같이, 번뇌가 끊어진 부처님의 정심(定心) 가운데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법이 명량(明瞭)하게 나타나므로 해인정(海印定)이라고 했다. 나가무라 하지메(中村 元)의 『불교어대사전(佛敎語大辭典)』(1975)에 의하면, 해인삼매는 산스크리트어 'sagara - mudra - samadhi'의 한역어(漢譯語)다. 이 사전에는 해인이 『팔십화엄(八十華嚴)』 14권, 『화엄경(華嚴經)』 6권, 『유심법계기(遊心法界記)』, 『오교장(五敎章)』, 『정법안장(正法眼藏)』 등에도 나온다고 한다.

또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 따르면 원래 해인은 “우주(宇宙)의 일체(一切)를 각지(覺智)에서 얻은 불(佛)의 지(智)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깨달은 자 즉 부처가 제법(諸法)을 조관(照觀)하는 것이, 마치 바다가 만상(萬象)을 비추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해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결국 대해중(大海中)에 일체의 사물이 인상(印象)됨과 같이 담연(湛然)한 불(佛)의 지해(智海)로 일체의 법을 인현(印顯)하는 것이 바로 해인삼매의 원래 의미다. 대승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선정설(禪定說)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화엄경』의 해인삼매이다.

해인(海印)의 산스크리트어 원어가 Sagara mudra(해(海)의 인(印), 바다가 물건의 모습을 분명히 비추어 내는 일) 또는 Sagra - samrddhi(해(海)의 부(富), 해(海)의 번영(繁榮))이라는 설도 있다. 후자는 범본(梵本)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용어로서 보리유지(菩提流支)는 이 부분을 “해성취(海成就)”(T.26-194)라고 한역(漢譯)했다.

이에 대해 기무라(木村 清孝)는 『초기 중국 화엄사상의 연구』(1977)에서 바다가 풍부하게 영출(映出)한 여러 가지 모습의 전체상을 samrddhi라고 할 수 있으므로, Sagara - samrddhi는 내용상 해인(海印)으로 한역(漢譯)된 것이라고 본다. 결국 기무라는 산스크리트어의 두 원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필자는 그의 견해에 찬동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산스크리트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고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해인이라고 한역(漢譯)되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화엄경백지목록서

해인의 산스크리트어 sagara mudra는 일단 “해(海)의 인(印)”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해(海)는 넓은 수류(水流)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samudra와 팔리어 samudda의 한역어(漢譯語)이다. 그리고 한역된 인(印)에 해당하는 mudra는 “찍다, 베끼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체의 사물이 거울 가운데 비춰진 색상(色像)과도 같이 부처님의 심중에 남김없이 현현(顯現)하였다는 깊은 선정(禪定)의 경지를, 대해(大海)가 널리 모든 사물을 비추는 일에 비유한 말이다.

그런데 윌리엄스(Williams, 1819-1899)의 A SANSKRIT-ENGLISH DICTIONARY(1899)에 따르면, mudra에 대한 영문 해석은 도장, 찍는 도구, 석판 인쇄용 도구, 도장에 의해 찍혀진 무늬나 흔적 등으로 적혀 있을 뿐이다. 즉 명사적 용법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samudra와 sagara도 별 차이가 없이 바다 또는 대양(大洋)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인의 인(印)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기무라(木村 清孝)는 『초기 중국 화엄사상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해인(海印)은 의미상 단순히 해(海)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광반야경(放光般若經)』에서는 이 삼매를 “일체법소취해삼매(一切法所聚海三昧)”라고 번역하고 있으며(T.8-23),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서는 “설계법해삼매(攝諸法海三昧)”라고 번역하기(T.8-251c) 때문이다. 그러나 범본(梵本) 『이만오천송반야(二萬五千瓔珞般若)』에는 “일체의 법을 모은 해(海)의 인(印)의 삼매(三昧)”라고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인(印)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사용되어졌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해(海)는 어디까지나 인(印)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일체법(一切法)을 단순히 모으고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비추어내지 않으면 이 삼매(三昧)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본경(本經)의 해인(海印)의 의미의 중점은 해(海)에 있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초발심(初發心)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선사(禪師)였던 스즈키 순류의 스승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남보다 늦게 30세가 넘어 입도한 후 자신이 누구보다도 고요한 사람이고, 고집센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구도자제와 예불(禮佛)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다. 특히 절하는 행위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없애는데 가장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그는 수천, 수만 번 절을 하고 또 절을 하여 이마에 굳은살이 박혀 있었다.

그가 철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스승은 “젊었을 때는 호랑이 같았는데 이제는 고양이 같지.”하며 양순해진 것을 기뻐하였다.

“나라는 아상(我相)을 죽이기 위한 이러한 솔한 노력을, 그러나 아무도 사망의 본체인 ‘나’를 철저히 죽여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즈키 순류도 그의 스승도, 또 그의 스승의 스승도 모두 임종했다. 말년에 암으로 고통을 당하며 일생을 마감한 스즈키 순류가 중요시했던 것은 첫 마음(初心)이었다.

스즈키 선사(禪師)는 늘 말했다.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란 거의 없다.” 즉, 초보자의 마음은 텅 비어있고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이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이지만, 도(道)에 있어 이미 익숙해진 사람, 몇 년, 몇 십 년 뒤였노라 하는 전문가의 마음은 이미 때린 마음이며 타성에 젖은 새로운 아집으로 가득찬 어두운 마음이란 뜻이다.

따라서 자칫 열려 있던 순수한 첫 마음을 잃고 자기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판단

하는, 도를 완성하기에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되어버린 자들이 많음을 항상 경고하였다. 의상 대사는 초발심을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면 문득 정각을 이루게 된다는 뜻으로 “初發心是便正覺(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법성계』에서 밝힌 바 있다.

첫 마음!! 이 영생의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의 신선한 충격과 희열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가? 마치 내 앞에 무한 광대한 신천지가 열린 듯, 금방이라도 우리의 완성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졌던 그 환희를 기억하는가?

단상에서 설교하시는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감격으로 응대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 그 마음을 과연 우리는 잃지 않고 있는가! 손바닥이 터져 갈라져 피가 나올 정도로 손뼉 치고 곡조 있는 기도로 여기면서 찬송하던 그 열정, 우리의 첫 소리, 첫 외침, 첫 마음, 첫 각오와 결심을 우리는 고스란히 키워 왔는가?

수십 년의 긴긴 세월 동안 주님께서는 그 불분는 초발심(初發心)을 일 초 일 초 고도로 상승시키며 당신 속의 하나님을 키워 드디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체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6천 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을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구세주 이긴자로 만들기 위해 연단에 연단을 가해 키워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첫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날로 상

필자 소개: 김탁 박사님은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산교단 미륵 신앙의 성립과 전개』와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2021), 『중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주하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님의 글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인문에서 기무라도 왜 하필이면 인(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확신이 아닌 추측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자(漢字)의 ‘인(印)’은 도장, 기호, 흔적, 형태를 찍는다, 행하다, 서화(書畫)를 판(版)에 새긴다. 지취를 남긴다 등의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인(印)’이 도장이라는 명사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도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身分)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된다. 천자(天子)가 사용하는 도장은 새(璽)라고 부르고, 신하(臣下)가 사용하는 도장은 인(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청조(淸朝)에 들어와서는 친왕(親王) 이상이 사용하는 도장은 보(寶)라고 부르고, 군왕(郡王) 이하의 하급 관리가 사용하는 도장은 인(印)이라고 불렀으며, 관(官)의 낮은 직급이 사용하는 도장은 도기(圖記) 또는 관방(關防)이라고 부르고, 사인(私人)이 사용하는 도장은 도장(圖章), 소인(小印), 사인(私印)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 해인의 ‘인(印)’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바다의 도장”으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해인은 어디까지나 산스크리트어 Sagara mudra에서 연원한 한역어(漢譯語)이므로, 삼매(三昧)를 서술하는 구조와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해인의 인(印)이 도장이라는 명사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찍힌다·지취를 남긴다·새겨진다 등의 동사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인(印)’을 동사적으로 풀이하여 해인삼매는 “바다에 (온갖 사물이) 남김없이 찍힐 정도로 높은 경지의 삼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인삼매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해인은 동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점차 명사적인 의미까지 확대해석 되었다. 해인은 원래는 삼매를 서술하는 한정적 용법만을 지녔었지만, 차츰 해인이라는 용어만으로도 해인삼매 자체를 가리킨다고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해인이 부처님께서 얻으신 삼매의 이름이며, “일체의 사물을 인상(印象)함과 같이, 담연(湛然)한 불(佛)의 지해(智海)로 일체의 법을 인현(印顯)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승되고 있는가? 아니면 옛 선사들이 경고했던 대로 이미 ‘점점이 때가 낀 마음, 매사에 타성화되고 익숙해진 도 닦노라’는 「전문인」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진리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나 개인의 이익과 결부시키고 이해타산에 더 빠른 경제전문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야말로 구제불능성 전문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진정 자신을 성찰해 보자.

“훌륭한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이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언제나 오로지 한 마음으로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순간순간 노력하고 있는 자야 스스로를 가장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훌륭한 아버지인 것이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일 초 전보다 정진해 나가려는 자세, 이것 하나만 충분하다. 자,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꾸준한 수행만이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셨다. 죽는 것도 말고 사는 것도 말고, 내가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는 원함이 없는, 무조건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허락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되고 알게 되며, 비로소 자유유법이 어떤 것이라는 윤곽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죽게 되거나 살게 되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가 유지되어, 그것이 상당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8】



5. 인간의 조상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었다

(지난호에 이어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손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자신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결과이다. 즉,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다.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자녀니라” 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씀이 있다.

이들 보아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천손민족이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하나

님의 자녀라 하며,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상의 모든 생물이며, 물과 흙과 공기와 인간으로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되는 인간은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세상 만물은 음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도 중성자 핵을 중심으로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에워싸고 돌아가고 있음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중성자 빛으로 존재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중 아담과 해와 두 신이, 음양의 성질을 가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아담과 해와는 마귀의 성질과 형상이 되는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우주에 꼭 차 있던 중성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신은 음양의 빛이 되는 마귀 신에 의하여 우주 만물로 산산조각이 난 상태가 우주의 별들이며, 지구

하나님의 중성자 빛은 곡선 광선이며,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의 중성자 빛은 생명의 빛이요, 태우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속에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소련의 키릴리언 사진에서처럼, 사람의 얼굴과 살아있는 나뭇잎을 고주파 촬영기로 찍었을 때 ‘오로라’라는 빛이 발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왼쪽 사진 참조), 북극 지방에서도 지표면으로 강한 오로라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지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기운으로 발산되어 나오는 모습이다.

또한 지구 중심부에 맨틀이 있고 그 외부에 마그마라는 수천 도의 불덩이가 들어있음에도 지구가 타지 않고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그것이 태우는 불이 아니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지진